

보도일시	2025.5.29.(목) 배포 즉시
담당처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단장 : 박범계)

이재명 도정, 권익위 청렴 시책 1등급, 청렴도 추락 주장 사실무근 “부패한 경기도 만들어” 허위사실 유포한 김문수 후보 고발

- 이 후보 경기도지사 재직 기간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받아
- 김 후보가 청렴 근거로 제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도 1등급 없는 가운데 2등급·최상위권
- 전 국민이 보는 TV토론에서 허위사실로 이재명 도정 부패했다고 매도 ... 서울경찰청 고발

□ 더불어민주당 진짜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9일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부패한 경기도를 만들어버렸다” 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

□ 김 후보는 지난 27일 제21대 대선 3차 TV토론(정치 분야)에서 “청렴도를 전국 1위로까지 올려놨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걸 또 상당히 부패한 경기도, 또 성남시를 만들어 버리고” 라고 발언하는 등 이 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 법률지원단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경기도는 2019년, 2021년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2년 연속 부패사건 미발생 등을 인정받아 평가 자체가 면제됐다.

앞선 남경필 지사 도정시기인 2014~2018년에는 ‘3등급’ 이나 ‘2등급’ 평가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가 지사에 취임한 이후 전임 지사 재직 때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 또 권익위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김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 1~16위로 평가받았다.

남경필 도정 당시에 2·3 등급, 이재명 도정 당시에 2·3등급로 권익위로부터 비슷한 수준의 청렴도를 평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는 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상당히 부패한 경기도, 성남시를 만들었다’ 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연도(년)	도지사	경기도 순위(위, 등급)	비고
2006	손학규	16	
2007	김문수 (피고발인)	16	
2008		2	
2009		10(보통)	
2010		6(우수)	
2011		1(1등급)	
2012		3(2등급)	1등급 없음, 1-6위 2등급
2013		4(2등급)	1등급 없음, 1-6위 2등급
2014		1(1등급)	1등급 1-2위, 2등급 3-4위
2015		남경필	5(2등급)
2016	5(2등급)		
2017	6(3등급)		
2018	이재명	2등급	1등급 1곳, 2등급 5곳
2019		2등급	1등급 없음, 2등급 7곳
2020		3등급	1등급 없음, 2등급 6곳, 3등급 6곳
2021		2등급	1등급 1곳, 2등급 5곳
2022	김동연	3등급	1등급 없음, 2등급 5곳, 3등급 8곳

[2006~2022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평가(광역자치단체) 현황 출처 : 국민권익위 누리집]

□ 아울러 김 후보는 지난 9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13일 부산 자갈치시장 유세에서 경기도지사 시기 청렴도와 관련해 “마지막 3년에는 전국 1등을 계속했습니다” 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실제 김 지사 임기 마지막 3년 동안 ▲2012년 3위 ▲2013년 4위 ▲2015년 1위로 평가 돼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이재명 도정은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고,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1등급이 없는 가운데 2등급 평가를 받는 등 사실상 ‘1위’에 준하는 청렴도를 보여줬다” 며 “김 후보는 권익위 종합 청렴도 평가만으로 본인만이 청렴하고 이재명 도정·시정은 부패했다며 전 국민이 보는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한 것” 이라고 역설했다. <끝>